

사설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꽃을 피우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종단협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불교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함으로써 불교종교와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이라 되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종포 및 사회교화사업, 교리연구 및 학술문화사업, 불교복지 및 구호사업 등' 9종의 사업을 펼치는 것도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거목한 정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단협의 활동은 실망의 차이를 넘어 내세울만한 기여도가 없다. 특히 80년 이후 종단협의 행로는 특정인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세평이다. 부

침의 가르침을 통해 국민을 계도하고 사회를 정화시켜 함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전시용 행사나 구호성 행사에 치중하며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산업사회의 도래는 불교계에도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했으며, 자외선 타외는 불교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가려서 여법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종단협은 변화의 첫 단계로 의형적 성장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화합승단의 면모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제 종단의 대의기구가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대

다.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성취권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본해 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단협의 변화에 합찬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이름없는 환골탈태'는 없다는 고언도 참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다. 종단협이 한국불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조금씩 서둘러 전진 효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단 한걸음이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행보할지 바란다. 정녕 이땅에 평화와 행복이라는 연꽃을 피워 재발조사와 일체증생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

종단협, 대외기구로 거듭나야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협은 변화의 중심 속에서 불법에 의한 불변의 如法한 자세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일에 매진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대표성만을 공허한 메타치려 외쳤을 뿐이다.

이처럼 제 정신을 못차리고 부처님의 그늘에서 호구지책이나 쟁기던 종단협

표적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의 부장들이 주무이사로서 사무를 관장해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재산관리법제 이후 폭풍같이 일어난 분통·탈종·창종 등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회원 가입조건을 강화시켰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행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 분과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종단협은 주무이사 3인으로 사무총장 역할을 대행할 예정이다. 임기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주무이사 세 사람의 간단한 포부를 들어본다.

시론
나부터 참회해야 모두 산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삼삼오오로 줄지어 온 가족을 잃게 된 어느 대학교수가 오열을 삼키며 내뱉은 말이다. 그 교수는 30여년의 외국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한달 전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공로로 영구 귀국한 분이다. 그런 그에게 조국은 처와 1남2녀의 목숨을 잇기에는 엄청난 비극으로 대담을 했다.

정말이지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던 말인가. 항간에선 살기 싫거든 '지하철을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 백화점으로 가라'는 말이 떠돈다. 꼬리를 무는 대형참사에 언론은 이에 이 나라를 '사고 공화국'으로 명명했다. 그 사고 공화국 정부에 대고 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발 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3개월이 멀다하고 대형참사가 터지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닌 人災로서, 또 전쟁이나 테러가 아닌 사고로서 수백명씩 죽고 다치는 그런 나라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改心해야 한다. 돌아서면 곧 잊고마는 그때 뿐의 다짐으로는 안된다. 전국 거리거리 목마다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만으로는 안된다.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금전만능이 빚어낸 果報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달라지기 위해서지 양심의 대상을 찾자는 게 아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죽게 만든 나쁜놈을 찾아 내 벌을 주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참회를 해야 한다. 우리도 그 일에 조금은 동참했기 때문이다.

날런의 사고는 이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낳은 사생아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금전만능으로 전도된 결과로 빚어진, 피할 수 없는 果報이다. 나만은 그 일과 무관하노라 하겠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차만 전도에 일조한 한 이상 그 일은 나의 참회를 요구한다. 내가 참회해야 남도 참회하고 세상도 바뀐다.



고 홍 문
(前 국회부의장)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임승차의 심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고 공화국에선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도자라는 사람은 대형 참사 때마다 '누구의 탓'으로 규정하기에 더 바빠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시간을 옆에 두어도 피스키에 열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참회할 마음을 내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엔 자조적인 냉소주의가 넘게 번져가고 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말,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는 말들이 지니고 있는 다분히 자학적인 분위기는 어쩌면 대형참사보다 더 심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명대로 살기 위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머리 꼭지부터 발 끝까지, 이 사회도 개인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나 자신이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참회를 하자. 하루하루 참회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자. 현 시대는 적자생존의 시대 아니라 협력생존의 시대임을 인식하고 나와 이웃, 사회, 국가, 자연이 모두 共業으로 얽힌 존재임을 깨달자. 깊은 참회를 통해서...

마침 종교계가 참회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왕이면 TV·방송이 하루 세번씩 참회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전파에 실어 내보냈으면 싶다.

나부터 달라져야 국가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산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참새 안락하셨습니까?'를 되뇌어야 하는 딱한 처지로 굴러 떨어지고 만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일 모레쯤이면 선진국 대열에 끼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지구촌의 조롱거리가 된 것일까. 당국은 이 모든 게 설계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시공부실 때문이라고 한다. 감리 때문이라고 한다. 관리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지체 높은 분은 5·6급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정부도 피해자라고 한다. 언론마저도 그 원인을 부실시공 뇌물 파렴치한 상층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무너진 것들을 말고 아작은 서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 아닐까. 나라 전체를 재개발하지 않고서는 비수한 사고를 면하기 어려운데 아닐까. 林立해 있는 저 아파트들, 대형 공연장들, 다리를, 지하철을 그 모두가 다 붕괴 및 분전은 아닐까.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옥죄어 온다.

"제발 명대로 살게 해달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선진국도 좋고 세계화도 좋고 부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람 사는 나라, 품위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면 될 하나, 발 밑이 꺼질까 두렵고 날벼락이 칠까봐 머리 위가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할 판에 세계에서 몇째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뭐 그리 자랑스럽겠는가.

우선 살고 보아야 한다. 하루하루가 편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누구라도 예외없이 끝까지 부치고 나서야 한다.

열린 마당

종단협 활성화

시현스님



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단협이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각 종단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

자월스님



불교의 공동 관심사항을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친목을 도모, 종단간의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종단협이 운영되어야 한다. 큰 종단은 큰 종단대로

도원스님



모든 종단들이 저마다의 위상을 정립하고 신심으로 불교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종단협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큰 종단에 늘려 군소종단들은 제 목소리

사업분담 각종단 역할 강화

는 사업을 구체화해 분야별·직능별로 분담해 공영체제로 나가야 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의미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려면 실무를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불교가 대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단간의 교감과 협조가 필요한데 기존의 1인 사무총장 체제와 달리 주무이사 3인이 함께 맡은 만큼 한층 일이 원활해 지리라 생각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형평 운영...공신력있는 단체로

작은 종단은 작은 종단대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평에 기초하면서, 군소종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배려해 주는 것이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기종이나 질서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이러한 기종이나 질서를 세워 잘못된 점을 규제하고 공신력있는 집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도 종단협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태고종 총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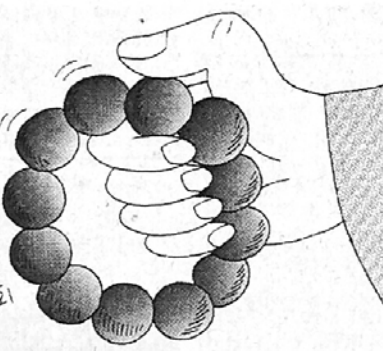
29개 종단 공동발전안 모색

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살피고 동시에 전시 행정이나 상 내기식 사업이 아닌, 29개 종단이 공동으로 요망하고 회귀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도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고 특정인을 위한 종단협이 아니라 정말로 종단간의 협의회, 대변자가 되도록 실무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태종 총무부장)

현대 만평 박구원



힘을 모아...

종단협 발자취 69년 출범...불교계 공동현안 대처

현재 29개 종단(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대한법회 원효종 화엄종 보통종 한국법회 진언법회 상화법회 용화법회 미륵진화법회 불교총지 원용법회 삼륜종 조동종 여래미타법회 대한대승법회 원불교)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의 역사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3월 12개 종단 대표 및 발기인 2백여명이 한국불교총연합회를 창립하는데 이것이 종단협의 전신이다. 한국불교총연합회는 1973년 한일불교 친선협회와 통합 한국불교회를 결성, 다시 대한불교총연합회로 되었다가 81년 4월 2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창립발기총회를 개최, 회장에 성수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지난 90년 법륜종 원용종 등

8개 신생종단을 받아들여 26개 종단으로 늘어나고 94년 2월엔 일종선교종과 영불종이 가입하고 지난해 정토종이 제명돼 29개 종단이 되었다.

종단협의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신년하례법회 서울 시민을 위한 기원법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법회 등 합동법회 식과, 한일 불교교류대회 등 국제불교교류, 그리고 통일·환경사업 등 대 사회적 역할이다.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법제정 추진 청원서 제출, 경순제도, 승려보검제도 실시, 88년 불재법 폐지 의견서제출 등 불교계 공동 현안에 대해 범종단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88년 9월 13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1995년도 불전국역 연수과정 및 연구과정생 모집요강

제1기 연구과정

- 모집인원: 20명
- 모집대상: 비구·비구니 및 재가불자
- 응시자격: 본 연구원 연수과정 수료자 중강 이상 자격자 일반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불전번역에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필기시험(80%) 및 면접(20%)
- 서류제출 및 전형료
 - 가. 본원소정양식 응시원부 1부
 -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다. 각 사찰 중앙이력 증명서 1부
 - 라. 이력서 1부
 -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바. 사진 5매(반명함판)
 - 사. 제출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2,000원
 - (2) 전형료: 30,000원
- 전형일정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 교부 및 접수기간: 95.7.16(화)~9.12(토)
 - (2) 접수처: 불전국역연구원 사무실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내) TEL. 929-9991

제4기 연수과정

- 모집인원: 50명
- 모집대상: 비구·비구니 및 재가불자
- 응시자격: 강원졸업 이상 자격자 정규대 이상 졸업자 한역위주의 연구소 및 단체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 교내 대 불교대학을 수료한 자 불전번역의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필기시험(80%) 및 면접(20%)
- 서류제출 및 전형료
 - 가. 본원소정양식 응시원부 1부
 -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스님은 강원졸업 증명서 1부
 - 다. 이력서 1부
 -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마. 사진 5매(반명함판)
 - 바. 제출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2,000원
 - (2) 전형료: 30,000원
- 교육과정
 - 가. 교육기간: 2년
 - 나. 강의시간: 오후 7시 ~ 9시
 - 다. 강의과목:
 - ☞ 화엄학, 상유식론 중 1과목은 전공과목임
 - ☞ 육, 금요일 교과과정은 교양과목임

중앙승가대학부설 불전국역연구원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TEL. (02) 929-9991 / FAX. (02) 953-2876

학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학년	화엄학1 (법보스님)	상유식론1 (8월부교사)	교수론 (이명환교사)	좌선수 (법보스님)	
2학년	상유식론2 (8월부교사)	화엄학2 (법보스님)			

학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학년	이화정 (문태교사)	중론론 (이명환교사)	기신론 (배두승교사)	교승론 (이명환교사)	좌선수 (법보스님)
2학년	의전 (이명환교사)	유식 (문태교사)	유마경 (법보스님)		